기도의 능력

기도는 정말 무언가를 바꿀 수 있습니까?

Hans-Jörg Ronsdorf 설교

하나님께서 친히 기도에 의미를 부여하셨고, 자기 자녀들의 기도에 스스로를 매어 두셨습니다. 그래서 일의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. 예: 에스겔 22:29-31; 시편 106:23; 출애굽기 32:10-14. 에스겔서에서는 중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. 기도가 없으면 나쁜 결과가 따릅니다. 기도가 있었다면 심판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. 모세가 기도하자 심판이 돌이켜졌습니다.

예수님과 기도: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적어도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.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–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이.

존 웨슬리(John Wesley)는 조금 과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. "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."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에 특별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. 예를 들어 홍해 앞의 모세,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이 그렇습니다.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! (야고보서 5:16)

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필요성: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. 그것은 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–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통 없이는 교제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.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, 일어나는 많은 일이 우리가 그분과 나누는 소통과 관련되도록 하셨습니다.

기도와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결정권: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, 그분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도 그분께 영향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.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. 그분은 대리자를 통해 일하십니다.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이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. **기도는 영적이고 보이지 않으며 잠정적인 형태의 다스림입니다 –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.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분과 뜻을 같이할 때, 그것은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일입니다.**

기도의 긴급성: 하나님은 기도를 진지하게 여기십니다. 그분은 선택의 자유와 세상의 안정성에 스스로를 매어 두신 것처럼 기도에도 스스로를 매어 두십니다. 실제로 많은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– 어떤 일은 그들이 기도할 때에만 일어납니다.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를 결정적인 변수로 삼으셨습니다. 이 변수가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고 무엇을 하실 수 없는지를 결정합니다.

긴급성과 한계: 여기에서 마치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는 것처럼 잘못된 결론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.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균형이 필요합니다.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는 백만 가지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,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. **모든 것이**

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생각과 아무것도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는 생각 사이에서 우리에게는 균형이 필요합니다.

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까? 우리가 기도하면, 하나님은 우주적 전쟁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,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피조 세계의 맥락 안에서 응답하십니다. **기도는 거기에서 차이를 만듭니다.** 그러나 기도만이 세상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. 되돌릴 수 없는 자유 의지를 가진 수많은 천사와 사람들, 그리고 안정된 세상을 보장하는 자연법칙도 거기에 속합니다. 하나님은 이것을 존중하십니다. 그분이 그렇게 원하셨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라는 변수가 이 다른 변수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,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.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.

기도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–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규칙들:

하나님의 뜻: 이것은 유일한 변수는 아니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수입니다.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응답의 전제 조건입니다(요한일서 5:14; 마태복음 26:39; 고린도후서 12:7).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이나 그분의 완전한 계획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. 육체의 가시는 이상적인 것이 아니었지만, 바울에게는 그것이 있는 편이 더 나았습니다. 그것이 그를 교만에서 지켜 주었습니다! 우리의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, 그 응답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?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꼭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(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회심하지 않는다면, 하나님은 그 사람의 회심을 원하시지만 그 사람의 '아니요'를 존중하십니다).

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믿음: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을 몇 가지밖에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(마가복음 6:5-6). 예수님은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여러 번 "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"라고 말씀하셨습니다(마태복음 9:22; 마가복음 10:52; 누가복음 17:19).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.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, 그것이 반드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닙니다.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데에는 우리가 알아낼 수 없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믿음은 하나의 변수입니다!

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: 누가복음 5:20: 지붕을 통해 달아 내려진 중풍병자; 마태복음 8:13: 백부장; 그러나 마가복음 9:14-29도 있습니다: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. 야고보서 1:6-7도 보십시오. 그러나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대개는 믿음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. 믿음이 기도를 더 효력 있게 한다는 것은 원칙이지만, 기도가 언제나 응답된다는 규칙은 아닙니다.

끈질긴 기도: 눈에 보이는 삶에도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. 기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(누가복음 11:5-8; 18:1). 기도는 마술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. 우리는 무언가가 아주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처럼 기도해야 합니다.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(데살로니가전서 5:17).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너무 적게 기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. 그렇다고 오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. 그것은 원칙이지 성취의 보장이 아닙니다 – 너무나 많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.

어떤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수: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혼자서는 해낼 수 없거나, 혼자 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.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어떤 일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. 두세 사람이 합심하고(마태복음 18:19), 모인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(사도행전 4:24).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, 혼자 기도할 때와는 다른 차원이 기도에 더해집니다. 규칙은 아니지만 원칙입니다.

사람의 자유 의지: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지를 진지하게 여기신다는 엄숙한 증거입니다. 그분은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고, 하나님이 그 의지를 존중하시도록 사람을 지으셨습니다. 우리가 누군가의 회심을 위해 기도할 때, 하나님은 그 의지를 억지로 짓밟지 않으십니다. 그렇게 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효력을 더해 줍니다. 하나님의 능력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것입니다. 그분의 능력은 사랑입니다!

천사들의 자유 의지: 천사들은 기도의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다니엘은 다른 존재에게 가로막혔던 천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.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,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저항과 영적 전쟁이었습니다(다니엘 10:12-13).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방문하려고 기도했지만, 사탄이 그것을 막았습니다(데살로니가전서 2:18; 3:10). 권세들은 기도가 응답되느냐 가로막히느냐에 영향을 미칩니다. 그것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일 수 있으며,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.

영적 존재들의 수와 힘: 보이는 세계에서처럼 영적 전쟁도 이러한 특징들과 관련이 있습니다. 천사들은 서로 도우러 옵니다. 그것이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(다니엘 10:13). 엘리사의 사환은 도우러 온 수많은 천사를 보았습니다(열왕기하 6:16-17).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많이 있었고, 예수님이 그것들을 쫓아내셨습니다(마가복음 5:1-9). 제자들은 강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(마가복음 9:14-29). 일곱 영이 다시 돌아옵니다(누가복음 11:24-26).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.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(요한일서 4:4).

죄: 알고 있는 죄나 적대감이나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곳에서는 그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. 죄를 버리고 자백해야 합니다. 그래야 우리가 의인으로서 다시 효력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.

이 전쟁 지역에서, 천 가지 질문과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안고,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?

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–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만들지 맙시다!

하나님은 우리와 함께, 우리 곁에 계십니다! 언제나!

하나님은 모든 상황,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위해 선한 것을 이끌어 내실 수 있습니다(그분이 그 악을 일으키신 것이 아닐지라도).

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'왜?'라는 질문을 던지지 말고, 고난에 맞서고 악에 맞서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맙시다.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!

우리는 어떻게 살며 올바른 길과 올바른 결정을 찾을 수 있습니까?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살고 그분의 인도를 받음으로써입니다!

새 창조의 소망 가운데 삽시다! 모든 고난이 끝날 것입니다! 곧!

이 설교의 많은 생각은 그레고리 A. 보이드(Gregory A. Boyd)에게 빚진 것입니다.